

간편식부터 제수 음식까지...명절 먹거리 '더 쉽고 다양하게'

이마트, 25일까지 먹거리 최대 40%...롯데마트, 제수용 밀키트 할인 홈플러스 '계란대란' 진행...이마트24, 혼설족 겨냥 명절 도시락 판매

올해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음식을 즐기는 가치가 늘 것으로 보이면서 유통업체가 '먹거리 할인전'을 진행한다.

우선 이마트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종 먹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설날 온 가족 먹거리'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연계한 선보이는 국내산 수산물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남해안 봉지 굴'과 '손질 바닷장어' '제주 은갈치', '꽂어회' 등은 신세계포인트 회원이라면 20~40% 할인이 적용된다.

국거리나 불고기 요리에 쓰이는 한우는 2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삼겹살과 목심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때 20% 할인된다.

나주 신고배와 제수용 사과 등도 2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키크랩은 할인 가격인 100g당 7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모듬 초밥(30개)은 20% 할인 판매한다.

또 명절 밥상을 간편하게 차리고 싶은 고객들을 겨냥해 다음 달 1일까지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해 추석 일주일 전 '주요 가족 먹거리' 매출은 전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 사과 매출은 32% 증가했고, 배(17%), 한우(9%), 돼지고기(23%), 수산물(20%), 채소(25%) 등도 늘었다.

롯데마트도 오는 25일까지 명절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가정간편식 '요리하다' 제수용 상품을 할인 가격에 내놓고 돼지갈비, 만두 등은 2개 이상 구매할 때 20% 할인을 적용한다.

엘포인트 가입 회원이라면 다양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상품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제수 음식인

'모듬전'과 '모듬나물'을 각 3900원에 판매한다.

신선 먹거리도 엘포인트 회원에게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 육전용 흥두개살을 30% 할인 판매하며 제수용 도미, 대진 문어, 간편 수제 명태살 등은 2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러시아산 키크랩과 노르웨이산 연어는 행사카드로 구매할 때 각각 30%, 2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활갑시다' 행사와 연계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는 '홈플러스 대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30개 대란이 든 '행복대란'은 19일부터 22일까지 6990원에 판매한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스페인산 계란(30개 5590원)과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 등 다양하게 상품

을 마련했다. 훈제란, 반숙란, 구운란 각 20개는 21일까지 사흘 동안 7990원에 내놓는다.

편의점 이마트24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설족'을 겨냥해 설 대표 음식으로 구성된 '떡만둣국 도시락'과 '설날 잔치상 도시락'을 지난 1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소고기 버섯 잡채, 제주 흑돼지 목은지점, 육수 가득 소불고기 전골, 대한급장 곱창전골 등 간편식을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50% 할인을 적용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30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보다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왼쪽)와 농협 광주검사국(국장 임덕수)은 18일 광주지역 하나로마트를 찾아 설 명절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했다. 오는 20일까지 광주검사국은 명절 성수품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전남본부 설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점검

내일까지 하나로마트 중점 관리

농협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식품안전 점검 관리 기간'을 정하고 지역 하나로마트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임의 변조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 농산물 취급 여부 등이 포함됐다.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17일부터 농협 지역본부들은 농협 광주검사국, 전남검사국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신세계, 7년째 소외계층 희망 프로젝트 눈길

'사랑의 S-박스' 전달

광주신세계는 18일 광주 서구청을 찾아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S-박스'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매달 결혼 아동 등 100세대에 500만원 상당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의 S-박스'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연간 6000만원을 후원해왔으며, 누적 후원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과 광주시 서구 복지정책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 5곳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04년부터 매달 결혼 아동 42명 생활비를 지원하는 '결혼 아동 돕기'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법인 광주신세계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생문화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DK보드-X, 국내 첫 습식외벽마감 실물화재시험 통과

시공법 시험성적서 획득 첫 사례 가공성·단열효과 극대화 등 장점

DK보드는 최근 심재준불연 단열재 DK보드-X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심재준불연 단열재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 화재시험에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식(벽돌 또는 화강석 외장마감 시공법)으로 실물모형 화재시험 성적서를 확보한 기업은 있었으나, 습식외벽마감 시공법에 의해 시험성적서 획득한 사례는 디케이보드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2021년 3월 최초개발-양산화에 성공한 DK보드

-X는 디케이보드가 10여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4개의 특허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 단열효과 극대화, 뛰어난 가공성, 기존 발포 폴리스티렌(EPS) 단열재 대비 준불연 성능 보강 등 장점을 갖췄다.

DK보드-X는 이번 실물화재 화재시험에 앞서 의정부 아파트와 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연성 단열재와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시공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했다.

앞서 국토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심재(단열재료)준불연의 총열방출량 시험 및 가스유해성시험을 통과했고, 습식외벽마감을 한 실물모형 화재시험에서

도 최소 두께 50mm와 최대 두께 300mm를 각각 2회에 걸쳐 시공 및 시험을 진행했다.

특히 시험 제품 품질 성능과 시료의 일괄성을 위해 KCL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일괄시험을 했다.

이에 따라 디케이보드는 국내 최초로 습식외벽마감 실물모형 화재시험에 합격한 기업이 됐고, 향후 습식외벽마감 시공 시 50mm부터 300mm까지 모든 두께의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케이보드 관계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증대를 넘어 정직한 품질의 제품 생산만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100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차례상 비용 30만6498원

전통시장 19.2% 저렴

설 연휴(21~24일)를 사흘 앞둔 가운데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6498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주 전 조사 때보다 1.2% 하락한 수준으

로, 지난해 설 차례상 예상 비용과 비교하면 1.7%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드는 비용은 27만3991원으로, 대형유통업체(33만9005원)에서 구매할 때보다 19.2% 저렴한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성수품 18개로 간소화해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12만586원,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4만4064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